

# 요나라 시기 사회경제문화발전에 대한 발해 유민의 역할

梁玉多<sup>1)</sup>

김진광 옮김<sup>2)</sup>

## I

발해는 동북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민족이다. 요나라 정권이 비록 무력으로 발해를 멸망시켰으나, 그 사회발전수준은 오히려 발해보다 낮았다. 발해유민은 요나라 시기 사회문화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발해인들의 이 역사적인 공헌은 성실히 종합할 만하다.

## II

### 1. 경제부분

#### ① 농업

거란인은 본래 유목민족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말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따지고, 병사로서 그 강함을 논하여, 들판에서 말을 풀어 키우며 백성들을 병사로 양성한다. ... 말들은 수초를 좇아다니고 사람들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로 산짐승을 잡아 양식으로 한다”.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나라를 세운 이후 비교적 농업발전을 중시하였으나 그 기초가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 중국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 한중연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발해는 농업을 위주로 한 국가로서 농업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철제농기구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경작에는 축력을 사용하였으며, 농작물의 종류도 매우 풍부하여, 양식류에는 벼, 조, 보리, 메밀, 콩, 기장 등 6종류가 있었음이 고고학 발굴로 증명되었다. 요나라시기에 고토에서 옮겨진 이후 새로 옮겨진 지역에서도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었다. 그들의 농업생산수준은 거란족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요나라 조정에서는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태종(太宗)은 “농상을 권면하고 방직을 가르쳤으며”, 또한 “제도(諸道)의 병사들에게 감히 농작물을 해치는 사람은 군법으로 다스린다고 조서를 내렸다.” 성종(聖宗)은 조서를 내려 “오곡이 흉년이 들때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세금을 대신하였고, 메뚜기떼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자 요역을 금지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문하였다.” 또한 “제군관(諸軍官)이 아무 때나 사냥을 하여 농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였다.”<sup>3)</sup> 점차 발해유민들이 모여 사는 요동지역의 인구는 “편호가 수십 여 만에 이르렀고, 경지도 천여리가 되어”<sup>4)</sup> 한족들이 모여 사는 연운(燕云)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는데, 이곳은 요나라의 양대 곡창지대이다.

요나라 성종(聖宗) 태평(太平) 9년(1029), 연(燕) 지역에서 재해를 만나 기근이 발생함에 호부부사(戶部副使) 왕가(王嘉)가 배들 만들고 해운에 익숙한 뱃사람들을 모집하여 요동의 양식을 연(燕)지로 옮겨 구제하도록 주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수토가 매우 위험하다고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았다.<sup>5)</sup> 이것은 요동에는 옮겨올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양의 식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사(遼史)』에는 연(燕)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요동에서 기근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것은 요동의 농업생산량이 많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요사(遼史)』 「식화지(食貨志)」에는 “함(咸), 신(信), 소(蘇), 복(復), 진(辰), 해(海), 동(同), 은(銀), 오(烏), 수(遼), 춘(春), 태(泰) 등의 요동 50여 곳 성안에서 해안가에 인접한 곳곳의 주에는 각각 창고가 있어서 조종법(祖宗法)에 따라 내어서 새 것으로 바꾸고, 백성들이 입시로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2분의 이자를 받았다. 20~30만석 정도는 근심하지 않았고, 비록 누차에 걸쳐 전쟁이 일어났으나 일찍이 사용하기에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여, 요동은 농업이 성행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조종법(祖宗法)”이 누구의 조종법인가는 설명이 필요하다. 거란인들은 본래 유목민족으로 농업이 없다. 그 농업은 요나라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야 비로소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적창지법(集倉之法)은 발전한 농업사회에 대응하는 창고와 구제제도이다. 그래서 거란인의 “조종법(祖宗法)”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동에 거주한 발해인들의 “조종법(祖宗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해유민들은 선진적인 농업기술과 농업생산방식을 요동으로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양식관리와 조절방식도 요동으로 들여왔으며, 농업에서 거란에게 미친 발해의 영향

3) 『遼史』 권50, 「食貨志」 상, 中華書局, 1974.

4) 『宋史』 권264, 「宋理宗」, 中華書局, 1974.

5) 『遼史』 권50, 「食貨志」 상, 中華書局, 1974.

은 전방위적이다.

발해인은 채소재배방법도 거란인들에게 전해주었다. 거란인들은 본래 “수초를 따라 말을 먹이고 사람들은 쪼를 증시하여.” 채소를 먹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발해인들에게 배워서 채소 먹기를 즐겨하였다. 예를 들면, 발해인들에게 아욱(葵菜)을 재배하고 방법과 식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규채(葵菜)는 아욱이라고도 하는 매우 오래된 채소의 하나이다. 늦어도 한나라시기에 이르러 중원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었고, 대체로 위진남북조시기에 동북으로 전해졌으며, 발해시기에는 폭넓은 지역에서 재배된, 일상에서 발해인들의 가장 중요한 채소이다.<sup>6)</sup> 요나라 흥종(興宗)이 재상 장검(張儉)의 집에 행차하였는데, 장검(張儉)이 “아욱국과 밥을 올리니 황제가 맛있게 먹었다”<sup>7)</sup>고 한다. 발해와 연운(燕雲)지역에는 모두 아욱이 있었다. 그래서 요나라의 아욱이 도대체 어디에서 전해졌는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요나라는 먼저 발해를 얻고 나중에 연운(燕雲)을 얻었으므로 발해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는 잠시 발해에서 전래된 것으로 이해한다.

발해인과 한인들의 영향과 요나라 조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요나라의 농업은 빠르게 발전해갔다. 양식의 생산량은 매우 높아져서, 보령(保寧) 7년(975) 북한(北漢)이 요나라에 양식을 구함에, 요나라에서는 “조 20만곡을 내어 그들을 도와주었다.” 도종(道宗) 초년에는 “춘주(春州)에서 조 한말 값이 6전에 이었다.” 곡물가격이 이렇게 낮은 것은 현지의 양식이 매우 풍부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진주(鎭州)는 “14년간 조 수십 만 곡이 쌓여, 한말 값이 몇 전을 넘지 못했다”<sup>8)</sup> 이러한 것도 발해인들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농업의 발전은 요나라 정권에 거액의 세수를 증대시켜 정부의 각종 지출을 보증하였으며 요나라 왕조의 사회적인 기반을 안정시켰다.

## ② 야철업과 철기제조업

발해인들은 철기를 매우 많이 사용하였는데,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유지에서만 철기 1,596점이 출토되었다. “종류가 복잡하여, 자귀(釜), 낫(鎌), 칼(刀), 창(矛), 화살촉(鏃), 갑옷편(甲片), 족집게(鑊), 열쇠장식(鎖簪), 열쇠(銅匙), 주발(碗), 동이(盆), 팔찌(鐲), 대구(帶具), 수레휘갑쇠(車轡), 문지도리(門樞), 자물쇠를 거는 반원형의 고리(門鼻), 말뚝(桩), 경첩(合葉), 고리(環), 쇠고리(鐵鉤), 못(釘), 못받침(釘墊), 泡, 팔각형 쇠조각(八角形鐵片), 송곳형태의 물건(錐形器), 투구머리(盔頂), 철사(鐵絲) 등 27종에 이른다. 어떤 것은 생산도구에 속하고, 어떤 것은 병장기에 속하며, 어떤 것은 생활도구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건축재료에 포함된다.”<sup>9)</sup> 고고학자료는 발해의 이러한 철기가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철광을 채굴하는 것에서 제작까지 모두 발해인들 스스로

6) 梁玉多, 「발해의 몇 가지 음식습관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42, 서경문화사, 2008.

7) 『遼史』 권80, 「張儉傳」, 中華書局, 1974.

8) 『遼史』 권59, 「食貨志」 상, 中華書局, 1974.

9)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六頂山與渤海鐵」,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112쪽.

완성한 것이다. 발해인들의 야철지는 현재 알려진 곳으로테 각각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 중평향(仲平鄉),<sup>10)</sup> 화룡현(和龍縣) 서성향(西城鄉) 고성촌(古城村),<sup>11)</sup> 무송현(撫松縣) 송교향(松郊鄉) 신안촌(新安村), 화룡현(和龍縣) 용화향(勇化鄉) 혜장촌(惠章村),<sup>12)</sup> 러시아 연해주 니콜라예프스크 2호성지,<sup>13)</sup> 흑룡강성 의란현(依蘭縣) 일대, 즉 발해시기의 철리부(鐵利府) 등 6곳에 있다. 이러한 규모의 야철과 철기계조업은 분명 숙련된 장인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라로 말하면, 이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다. 요나라는 발해유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철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거란인들은 본래 야철을 알지 못하였으며, 아보기(阿保機)가 건국 초에 실위(室韋)를 병합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위인들의 야철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에서는 청동, 철, 금, 은 등이 생산되며 그 나라 사람들은 동기(銅器)와 철기(鐵器)를 잘 만들었다.”<sup>14)</sup> 그러나 실위인들의 야철기술 수준은 발해인들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 다시 발해인들의 야철을 대량으로 사용하였다.

비교적 큰 요나라의 야철지는 3곳이 있는데, 모두 발해의 장인들을 이용하여 채굴하고 제련한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의 요양(遼陽), 안산(鞍山)일대에 있었다. 『요사(遼史)』 「식화지(食貨志)」에는 “또한 갈술부(曷術部)라는 곳이 있는데 철이 많이 난다. 갈술(曷術)은 국어로 철을 말한다. 부에는 유습하(柳濕河), 삼출고사(三黜古斯), 수산(手山) 등 3곳의 야철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갈술부(曷術部)는 지금의 요령성 요양(遼陽)과 안산(鞍山) 및 그 동쪽 지역에 있었다. 금나라시기에 갈소관여진(曷蘇館女眞)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른바 갈술부(曷術部)가 여진의 한 부(部)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장박천(張博泉)은 “거란은 대대적으로 발해의 호구를 요양으로 옮겨 철을 제작하여 갈술부(曷術部) 또는 갈술관(曷術館)으로 불렀다”<sup>15)</sup>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요사(遼史)』 「식화지(食貨志)」하에는 “신책(神冊) 초에 발해를 평정하고 광주(廣州)를 얻었는데, 본래는 발해의 철리부(鐵利府)였으므로, 철리주(鐵利州)로 고쳤다. 그곳에는 철이 많이 난다. 동평현(東平縣)은 본래 한나라 양평현(襄平縣) 고지이다. 철광이 나며 채굴하고 제련하는 300호를 두고 공납을 받았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는 『요사(遼史)』에서 착란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철리주(鐵利州)는 본래 무송현(撫松縣) 하류에 위치하고 있던 계절증심인 철리부(鐵利府)가 아니라, 그곳은 발해 철리부(鐵利府)에 속한 광주(廣州)의 백성들을 남쪽의 요동으로 옮긴 이후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철리주(鐵利州)는 지금의 요령성 무순(撫順)북쪽에 있었는데, 요나라가 원래의 발

10) 吉林省文物志編委會, 『汪淸縣文物志』, 1984(내부자료), 40~41쪽.

11)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吉林省志』 권43, 『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1991, 64쪽.

12) 中國國家文物局主編,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1993, 139쪽.

13) 샤프쿠노프 등 저, 宋玉彬 譯, 『遼朝國及其俄羅斯的這東部邊』,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122쪽.

14) 『遼史』 권80, 『食貨志』 하, 中華書局, 1974.

15)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235쪽.

해 철리부(鐵利府)에 속한 광주(廣州)의 장인들을 이곳으로 옮겨 현지의 철광을 채굴하여 철을 제작하였다. 동평현(東平縣)은 바로 지금의 요양(遼陽)으로 전문적으로 채굴하고 제련하는 300호가 있었으며, 또한 야철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 2에는 동경도(東京道)에 철주(鐵州)가 있는데, “발해시기에 주(州)를 설치하였고”, 탕지현(湯池縣) 1곳을 관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철주(鐵州)는 “발해에서 주(州)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발해의 백성들을 옮겨서 주(州)를 설치한 것”이다. 철주(鐵州)라는 이름이 있는 이상 야철업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발해유민들이 야철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요나라 때 철주(鐵州)의 위치에 관해서 현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안산설(鞍山說)이다. 장박천(張博泉)은 철주(鐵州)에 속한 유일한 현인 탕지(湯池)는 바로 지금의 안산시(鞍山市) 지강자(池崗子)인데, 1630년에 건립된 할머니묘비(奶奶廟碑)가 증거로, 그 글에는 “요양성 남쪽 안산(鞍山) 땅을 탕지(湯池)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근에는 또한 마침 남북 길이 약 1리, 동서 너비 약 0.5리에 이르는 방형의 고성지가 있으므로 이곳이 바로 요양의 탕지(湯池)라고 하였다.<sup>16)</sup> 송연영(宋延英)도 철주(鐵州)는 바로 지금의 안산(鞍山)이라고 인식한다.<sup>17)</sup> 다른 하나는 대석교시(大石橋市) 탕지진설(湯池鎭說)이다. 담기양(譚其驤)의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다. 펴자는 이 탕지(湯池)는 현대적인 지명으로서 증거를 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근에 철광도 없고 고대 야철유지도 없다. 그러나 안산(鞍山) 일대는 철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용광로유적과 광산도 발견되었고, 안산(鞍山)의 수산광구(首山礦區)에서 깊이가 18m 이상에 달하는 요나라시기 채굴광 2~3곳이 발견되었다.<sup>18)</sup>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철주(鐵州)는 안산(鞍山)이 맞다.

두 번째는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동북부의 있는 난평(灤平), 융화(隆化)부터 평천(平泉) 일대이다. 8세기말 북송왕(北宋王)이 일찍이 요나라로 사행을 떠날 때 도중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한 『왕흔공행정록(王忻公行程錄)』에 “70리를 가면 유하관(柳河館: 지금의 河北省 灤平縣 紅旗鎭)에 이르는데, 유하(柳河)는 완사 곁에 있다. 서북쪽에 야철소가 있으며, 발해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하려사석(河瀾沙石)을 제련하여 철을 만든다. ... 70리를 가면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 지금의 河北省 隆化縣 韓麻營鄉)에 이르는데, 변호(番戶) 100여 채가 있다. 가시나무를 엮어 조리를 만들고, 철을 단조하여 무기를 만든다. ... 90리를 가면 철장관(鐵漿館: 지금의 河北省 平泉縣 佳子店)에 이른다.”<sup>19)</sup> 유하관(柳河館),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 철장관(鐵漿館)에는 모두 야철 또는 철기가공업이 있었다. 기록에서는 비록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과 철장관(鐵漿館) 장인들의 족속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윗글로 분석하면 발해인일 가능성이 높다. 유하관(柳河館) 야철은 철산지이고,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과 철장관(鐵漿館)은 바로 철기 가공지로,

16)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235쪽.

17) 宋延英, 『遼代鐵州地址考』, 『歷史研究』 1959-6기.

18) 穆鴻利, 『評遼聖宗銳意改革與遼朝“盛世”的出現』, 『松漠集』, 中國國際出版社, 2005, 19쪽.

19) 葉隆禮, 『契丹國志』 권24, 上海古籍出版社, 1985.

유하관(柳河館)에서 생산되는 철을 이용하여 철기로 가공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생산체제(鏈條)이다.

세 번째 야철과 철기제작중심은 지금의 내몽고(內蒙古) 파림우기(巴林右旗), 즉 요나라의 요주(遼州)에 있었다. 요주(遼州) 백성의 절대다수는 발해인들이며, 장락현(長樂縣)을 판할한다. “태조가 발해를 정벌하고 그 백성들을 옮겨 현을 만들어 살게 하였다. 호구는 4천인데, 그중 1천호는 철을 공납한다”<sup>20)</sup> 철을 공납하는 1천호는 당연히 야철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다. 만약 집집마다 2정(丁)으로 계산하면 장락현(長樂縣) 한 지역에 2천 여 명의 철공이 있으므로 이곳도 요나라 시기 야철공업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요주성지(遼州城址)에서 “큰 성의 동문 안길 북쪽의 건축지 기단 지표면에 매우 두터운 제철찌꺼기가 퇴적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 야철생산장 유적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전체 도로 남쪽은 북쪽성(北城)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서, 건축기단유적이 거의 없다. 곳곳에 야철 찌꺼기가 있고, 심지어는 지표면의 토양도 검푸른 흑색을 띠고 있어서 당연히 규모가 대단히 비교적 큰 야철유적임”을 발견하였다.<sup>21)</sup> 장락현(長樂縣)은 요나라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와 매우 가까워,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은 상경(上京)에서 사용되었음에 의문이 없다.

고인들의 제철을 위한 채광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토정철(土錠鐵)을 이용하는 것이다. 토정철(土錠鐵)은 흙덩어리와 같은 철광으로 자철광(磁鐵礦)이 많다. “흙비탕에 평추(秤錘)같은 검은색 덩어리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분명 철과 같다. 그것을 주우면 부서진다. 만약 제련하면서 뜨는 것은 건져내고 다시 비에 적신 이후에 흙을 뒤집고, 몇 촌에 해당되는 흙을 좁는다.” 두 번째는 사철(沙鐵)로, 바로 가늘고 작은 것이다. 모래에 섞여 있는 철광으로 “모든 사철은 흙막을 걸어내면 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을 씻고 가마에 넣어 끓인다. 용화된 이후는 정철(錠鐵)과 다르지 않다.”<sup>22)</sup> 세 번째는 요즘 철광을 채굴하는 것과 같이 광산을 뚫는 것이다. 발해인들은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요나라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사용한 채굴방식은 2가지이다. 유하관(柳河館)의 장인들이 “하려사석(河瀾沙石)을 단련하여 철을 만든다”고 한 것은 전형적으로 사철광(沙鐵礦)을 걸러서 얻는 것이다. 안산(鞍山) 등지의 요나라 시기 광산유적은 발해유민들이 광산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해인들은 비교적 능숙한 야철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발해의 야철 유적 중에서는 석탄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은 발해인들이 목재나 목탄을 썼음을 설명한다. 철광석을 녹여서 생철(生鐵)을 만드는 온도는 1146℃이고, 순철(純鐵)을 제련하여 강철(鋼鐵)을 만들기 위해서는 1537℃가 필요하다. 나무나 목탄을 연소해서 1146℃에 이르게 하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야련해서 철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온도를 1537℃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발해인들이 비교적 순도가 높은 철을 생산할 수 있

20) 『遼史』 권97, 『地理志』1, 中華書局, 1974.

21) 馮永謙, 姜念思, 『遼代遼州調查記』 『東北考古與歷史』, 1982-1기.

22) 宋應星, 『天工開物』, 岳麓書社, 2002, 312쪽.

었던 것은 그들이 온도가 높은 도가니의 보온과 풀무질 등에서 상당한 기술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들의 기술은 요나라시기 야철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철기 제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단조, 즉 열을 가하여 물러진 쇳덩어리를 두들겨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발해인들의 단조기술은 비교적 높았다. 러시아 학자들은 출토된 발해 단조철기를 연구하여 출토된 철기의 품질이 상당히 좋고 세철찌꺼기 등 불순물의 함량도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발해의 단조장인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에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들은 크기가 매우 작은 단조제품을 만들 때, 이미 필요한 열량사용량을 정확하게 선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이것은 단조과정에서 가열이 지나치게 높으면 발생하는 위씨조직구조(魏氏組織構造) 제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의 단조생산기술수준이 높았다는 증거이다.<sup>23)</sup> 두 번째는 주조, 즉 녹인 쇳물을 미리 준비된 틀에 부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주조도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며 주조된 물건이 쉽게 깨질 수 있다. 수레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녀장(車轄)과 휘갑쇠(車轄) 등도 모두 주조한 것이다. 만약 주조기술이 높지 못하면 제작한 수레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없다. 『왕흔공행정록(王忻公行程錄)』에는 “70리쯤 가니 부곡관(富谷館)에 이른다. 백성들은 대부분 수레를 만드는데 발해인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4)</sup> 부곡관(富谷館)은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평천현성(平泉縣城)에서 북쪽으로 100리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데, 유하관(柳河館),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 철장관(鐵漿館)과도 멀지 않다. 이곳의 발해인들이 수레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녀장(車轄)과 휘갑쇠(車轄) 등의 철제부품은 당연히 타조부락관(打造部落館)과 철장관(鐵漿館)에서 주조한 것이며, 여기에 이르러서 생산체계가 더욱 완전해졌다.

현재의 문헌과 고고자료로 보면, 요나라의 야철과 철기제조업 대부분은 발해인 장인들에게서 온 것이다. 요나라시기 야철업에 대한 발해유민들의 영향력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하나만 얘기해 보면, 요나라시기 다른 금속야련업도 발해인들의 영향이 미쳤다.

요나라에는 “대명성(大名城)의 동야(銅冶), 은주(銀州)의 은야(銀冶), 음산(陰山)의 금야(金冶)”가 있다.<sup>25)</sup> 요나라의 은주(銀州)는 지금의 요령성 철령(鐵嶺)일대에 있는 은(銀) 산지이다. “본래는 발해의 부주(富州)인데 태조가 은야(銀冶)로 이름을 바꾸었다.”<sup>26)</sup> 발해의 부주(富州)는 회원부(懷遠府)에 속하였는데, 본래는 지금의 러시아연해주에 있던 발해의 은 생산지이다. 요나라는 부주(富州)에서 은을 야련하던 장인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계속해서 은 야련업에 종사토록하였다.

23) 에니코프, 『發海人的黑色金屬冶煉和加工業』, 王德厚 譯, 『東北亞考古資料譯文集』, 發海特輯, 北方文物雜誌社, 1998, 144쪽.

24) 葉隆禮, 『契丹國志』 권24, 上海古籍出版社, 1985.

25) 董萬崙, 『東北史綱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222쪽.

26) 『遼史』 권98, 『地理志』2, 中華書局, 1974.

발해인들의 동야련과 금야련 수준도 매우 높았다.

동은 발해인의 수출 주력상품으로서 바다를 통해 산동반도로 실고 가서 당나라와 무역하였다. 거란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인력과 기술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요나라의 동야련업에도 당연히 발해의 장인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발해의 금은기제작기술 수준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금화은완(金花銀碗), 도금참화은파배(鎏金鑿花銀把杯), 도금참화은반(鎏金鑿花銀盤), 사리함은합(舍利函銀盒) 등은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하다. 기술은 요나라로 전래되었다. 요나라 야율우지(耶律羽之)의 묘에서 방패형의 옥을 상감한 금반지, 5개의 꽃잎형태의 금잔, 타원형의 여지금반지, 주둥이가 둥글고 배가 꽃잎이 장식된 금잔, 송석을 상감한 마갈형(摩羯形) 금귀걸이, 금화은사두(金花銀渣斗) 등 제작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5개의 꽃잎형태의 금잔은 “주둥이는 꽃모양이고, 굽은 몸체는 비교적 깊으며, 둥근 굽받침이 있다. 안쪽 구연부에는 둥글게 말린 가지 무늬를 새겼고, 안쪽 바닥에는 두 마리의 고기무늬를 찍은 것을 중심으로 방사선 무늬, 오각문, 고리무늬 등을 새겨 넣었으며, 바깥쪽에 모두 새겨서 무늬를 돌렸다. 몸체 윗부분에는 보상연화문은 들렀는데, 중간에는 팽택이 있다. 안쪽에는 말린 풀과 갈대와 기러기무늬(卷草芦雁纹)를 장식하였고, 몸체 아래에는 양련화(仰蓮花)를 장식하였다. 배두리 받침은 물결무늬로 장식하였다. 구연부의 지름은 7.3cm, 바닥의 지름은 4cm, 높이는 4.9cm이다” 또한 주둥이가 둥글고 배부분에 꽃잎이 장식된 금잔(圓口花鵝腹金杯)는 “주둥이가 둥글고 몸체에는 5개의 꽃잎이 있으며 굽받침이 있다. 안팎에는 모두 무늬를 새겼다. 안쪽 구연부에는 보상연화무늬를 돌렸으며 안쪽 바닥에는 두 마리 물고기와 물결무늬가 있다. 바깥쪽 몸체는 한 쌍의 기러기와 꽃무늬(對雁銜花纹) 5조가 있다. 배두리 다리도 보상연화문을 장식하였다. 구연부의 지름은 7.7cm, 밑변의 지름은 4.3cm, 높이는 3cm이다.”<sup>27)</sup> 야율우지(耶律羽之)는 처음에 동란국(東丹國)의 차상(次相)에 임명되었고 후에는 좌상(左相)이 되었다. 졸골 동란국(東丹國)의 권력을 갖고, 여러 해 동안 발해유민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인 금은기는 발해의 장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요나라시기 발해유민들의 공예기술이 요나라시기의 금은기제작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촉진작용이 없을 수 없었음을 반영한다.

### ③ 방직업

발해국의 방직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다. 발해인들은 비단을 짤 수 있었다. 상수리나무를 이용하여 누에를 쳤을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이용해서도 누에를 쳤다.<sup>28)</sup> 발해에는 유명한 “현주의 베”도 있었다. 발해시기의 비단 제조는 아마도 환청에서 경영하고 정

2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赤峰市博物館, 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所, 『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 『文物』, 1998-1期.

28) 梁玉多, 『발해의 몇 가지 음식습관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42, 서경문화사, 2006.



부에서 수공업작업장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생산하였으며, 생산품은 아마도 왕실과 귀족이 사용하여 일반 백성들과는 무관하였을 것이다. 베를 짜는 것은 비단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짚짚마다 이루어졌을 것이며 생산량도 매우 많았을 것이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발해유민들은 요나라의 통치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내수공업방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생산량도 매우 많았다. 동단국(東丹國)에서는 “매년 거란국에 세포(細布) 5만필, 추포(麤布) 10만필을 공납하였다.”<sup>29)</sup> 위국충(魏國忠) 등의 추측에 의하면, 15만 필은 지금의 200만m에 해당한다고 한다.<sup>30)</sup>

고고발굴을 통해서 발해인들이 제조한 비단과 베의 실물이 드러났다. 1975년 발해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유적에서 발해의 사리함이 출토되었다. 사리함 가운데 방형의 은합과 원형의 은합이 여러 겹의 비단제품으로 싸여 있었다.<sup>31)</sup> 부패되었지만, 대체로 무늬를 알아 볼 수 있다. 비록 발해는 늘 당나라와 일본에서 비단을 수입하였지만, 발해의 특산 가운데 “옥주의 면(沃州之棉)”과 “용주의 명주(龍州之紬)”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직물(絲帛)은 역시 발해인 스스로 짤 가능성도 크다. 1992년 요나라 야율우지(耶律羽之)의 묘에서 단과권초대봉직금백(團案卷草對鳳織金錦), 라지봉록수(羅地鳳鹿繡) 등의 사직품들이 출토되었는데, 이것도 발해인들이 짤 가능성이 있다. 1972년 길림성 화룡현(和龍縣) 팔가자(八家子) 북대(北大)무덤에서 작은 마포가 발견되었다. “길이 8cm 너비 4cm의 순마(純麻) 실을 이용하여 짠 평문포(平紋布)였는데, cm마다 12가닥인 추포(麤布)에 속하였다.”<sup>32)</sup> 이곳이 바로 발해의 현주(顯州)였기 때문에 아마도 “현주의 베(顯州之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삼베가 발해시기의 것이지만, 요나라시기 발해인들이 짠 것도 당연히 이러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바로 발해인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방직기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라 정부에서는 직접 발해유민들로 하여금 방직에 종사토록 하였다. 『요사(遼史)』 권37 「지리지(地理志)」1에는 요나라 상경도(上京道) 조주성(祖州城)에 “동쪽에는 주의 관아와 여러 관사, 능금원(綾錦院)이 있는데 반원의 지후번(班院祗候蕃), 한, 발해인 300여명이 있었으며, 내부에서 사용에서 사용토록 공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능금원(綾錦院)은 고급 비단을 짜는 전문적인 수공업 작업장으로, 직공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발해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품을 “내부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황실에서 전용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 ④ 도자기제조업

발해인들의 도자기 제조기술은 비교적 발전하여 일반적인 생활용품, 건축재료를 제

29) 葉隆禮, 『契丹國志』 권14, 『東丹王』, 上海古籍出版社, 1985.

30) 魏國忠, 朱國忱, 郝慶雲,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372쪽.

31) 寧安縣文物管理站, 渤海鎮土臺子大隊,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國』, 『文物資料叢刊』2, 文物出版社, 1978.

32) 鄭永振, 嚴長祿, 『延慶古代簡史』, 延慶大學出版社, 2000, 84쪽.

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유도(釉陶), 삼채도(三彩陶) 및 자기(瓷器)를 구워낼 수 있었다. 발해유민들은 이 분야에서 요나라에 준 영향도 두드러져 쉽게 볼 수 있다.

연화문와당은 발해 도기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로 주요 발해건축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된다. 발해유민을 중심으로 하는 요나라 요주(遼州)에서 거의 완전한 연화문와당이 발견되었다(도면 1과 2).



〈그림 1〉 요나라 요주유적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출전 : 풍영검, 강념사, 1982, 「요대요주조사기」 『동북고고역사』1기)



〈그림 2〉 발해 상경용천부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출전 :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편, 1997, 「육정산여발해진」, 중국대백과전서출판사, 도판88)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기와 비교하면, 유약을 바른 도기는 훨씬 아름답고 튼튼하며 방수성이 좋다. 발해의 유도(釉陶)에는 2가지 유약이 있다. “납을 함유한 연질유약과 용융점이 높은 경질유약, 즉 장식암유약(長石岩釉)이 그것이다.”<sup>93)</sup> 요나라 요주(遼州)유

93) 아르더모예와 등, 「渤海時代瀕海地區居民의物質文化」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7-1期.

적에서 유도(釉陶)가 출토되었다.<sup>34)</sup> 현재의 내몽고(內蒙古) 아로과이십기(阿魯科尔沁旗) 한소목(罕蘇木) 소목조극도산(蘇木朝克圖山)에 위치한 야율우지(耶律羽之)묘의 주실은 완전히 유약을 바른 유리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sup>35)</sup> 상술한 것과 같이 야율우지(耶律羽之)는 오랫동안 동란국(東丹國)의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무덤이 발해유민들에 의해서 축조되었을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

삼채도기는 유도(釉陶)가운데 최상품이다. 그것은 요구되는 재질이 비교적 높아서 반드시 백색점토로 만들어야 한다. 구워내는 공정이 복잡하여 요구되는 기술수준도 높아야 한다. 삼채도를 굽는 것은 당시 동북아시아에 존재한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당에는 당삼채, 신라에는 신라삼채, 일본에는 나라삼채가 있었다. 발해인들도 삼채를 구워낼 수 있었다. 거란인들은 자신들의 도기제작기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요나라 초기의 삼채는 발해유민들이 제작한 것이다. 요주(遼州)유지에서 삼채가 출토되었는데, “삼채는 황, 록, 백 3가지 색깔을 사용했으며, 유약은 맑고 광택이 있었다. 유물의 형태는 사발(碗), 접시(碟) 등이다.”<sup>36)</sup>

요나라 중기이후에는 요삼채가 출현한다. 요삼채와 발해삼채의 관계는 현재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일우(李逸友)는 요삼채는 당삼채와 발해삼채를 모방하여 발전한 것이라고 인식한다.<sup>37)</sup> 위국충(魏國忠)은 발해의 삼채제작기술은 완전히 동란(東丹)의 서천으로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 일대에 전파되었으므로 요나라 후기 삼채공예의 발전과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sup>38)</sup> 그러나 팽선국(彭善國)은 “현재의 자료로 의하면, 아마도 이러한 결론은 합당하지 않다. 요삼채는 요나라시기 후기에야 비로소 발전한 제품이며, 요나라 무덤으로 편년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내몽고(內蒙古) 영성현(寧城縣) 소당묘(蕭闍墓)로, 이때는 발해가 멸망한지 이미 반세기가 지난 시기이므로 삼채공예가 이와 같이 큰 시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전승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sup>39)</sup> 필자는 위국충(魏國忠)의 견해에 가깝지만, 최종 결론은 보다 발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 ⑤ 음식습관

발해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특산물, 즉 “책성의 메주(柵城之豉)”가 있다. 메주는 바로 콩메주로 일반적으로는 석팔두(腊八豆)라고 하는 일종의 큰콩을 발효시켜 만든 양념으로서 “짠 것과 싱거운 것 두 종류가 있고, ... 싱거운 것은 약으로도 쓸 수 있다

34) 馮永謙, 姜念思, 「遼代饒州調查記」『東北考古與歷史』, 1982-171.

35)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赤峰市博物館, 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所, 「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文物』, 1996-1期.

36) 馮永謙, 姜念思, 「遼代饒州調查記」『東北考古與歷史』, 1982-171.

37) 李逸友, 「略論遼代契丹與漢人墓葬的特徵與分期」『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7.

38) 魏國忠, 朱國忱, 郝慶雲, 「遼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379쪽.

39) 彭善國, 「試析遼代遺址出土的釉陶和瓷器」『遼寧考古研究』5期, 科學出版社, 2006, 191쪽.

.”<sup>40)</sup> 그것은 발해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반찬으로 국을 끓일 수도 반찬으로 할 수도 직접 먹을 수도 있다.

메주도 일종의 오랜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진한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는데 된장에 비해서는 약간 늦다. 『제민요술(齊民要術)』 권8에는 콩두부를 만드는 매우 자세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서 남북조시기에 메주가 매우 광범위하게 식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송시기에 메주는 이미 매우 대중화된 식품이 되었다. 『원화기(原化記)』의 기록에 근거하면, 당나라시기 최희진(崔希眞)이 노인을 청하여 국수를 먹는데, 노인이 말하기를 “된장국으로 기름지게 할 수 있으니 매우 맛있다(能沃以豉汁, 則脉佳)”고 하였다.<sup>41)</sup> 송나라시기에는 “윤강어함시(潤江魚咸豉)” “십색함시(十色咸豉)” “계색강시(諸色姜豉)” “파사강시(波絲姜豉)”<sup>42)</sup> 등 메주를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반찬이 있었다. 금나라 사람들도 “×어함시(×魚咸豉)”라는 음식이 있었다.<sup>43)</sup> 오늘날에도 콩메주는 사람들의 식탁에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천의 이름난 음식인 “마파두부(麻婆豆腐)”와 “두시롱어(豆豉鯪魚)”와 같이 이것을 이용한 반찬과 동조림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요성은 옛날만 같지 못하며, 또한 아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메주가 언제 동북으로 유입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발해이전의 기록은 없다. 발해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매우 빈번하였기 때문에 발해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거란국지(契丹國志)』 권27에 근거하면, 매년 단오절에 요나라 궁궐에서는 반드시 발해의 요리사가 쑥떡과 대황탕(大黃湯)을 만들어서 황실에 올렸다고 한다. 발해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한 이상 이 두 식품은 발해에서 연원하고, 발해인들만이 토속적인 맛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것은 발해국이 멸망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졌고, 단지 명절에는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었으므로 분명 맛이 매우 좋은 발해음식 가운데 핵심이었을 것이다. 쑥떡은 현재도 남아있는 조선민족 음식으로 쑥과 찹쌀로 만들며 맛이 매우 좋다. 대황탕(大黃湯)은 어떤 것으로 만드는 지 단언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황(大黃)”은 아마도 국의 원료나 성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황(大黃)”은 맛이 매우 쓴 일종의 한약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을 끓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황(大黃)”은 당연히 국의 색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종의 노란색을 띠는 국이다. 찹자는 메주의 색깔도 누른색이고, 옛사람들이 그것으로 만든 국을 좋아했다고 생각된다. 황조영(黃朝英)의 『상소잡기(湘素雜記)』에서 육기(陸機)의 “천리순갱미하염시(千里菹羹未下鹽豉)”라는 의미는 바로 “내개 낙중의 오지방에는(蓋洛中未臯) 천리나 떨어져 있다(有千里之

40)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80, 1957쪽.

41) 李方等, 『太平廣記』 권39, 哈爾濱出版社, 1995.

42) 吳自牧, 『夢梁錄』 권16, 浙江人民出版社, 1984.

43) 樓朔, 『北行日錄』상: 勾書仁等編, 『奉使遼金行程錄』, 吉林文史出版社, 1995, 252쪽.

远). 이곳에는 순채국이라는 것이 있는데(吳中有菰羹), 양젖과 견줄만하다(自可敵羊酪). 집이 이곳과 멀어서(第以其地远), 끝내 가보지 못하였다(未可卒至). 그러므로 단지 미하염시라고 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순채국이 짬메주로 인해 더욱 맛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하였다.<sup>44)</sup> 짬 메주로 만든 국이 이와 같이 맛이 좋았다면, 대황탕(大黃湯)은 아마도 그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문화

### ①문학

발해유민이 지은 요나라시기의 문학작품이 보존된 것은 매우 적은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산문인 「배구사장(裴謬謝狀)」, 「하정표(賀正表)」 및 천조제(天祚帝) 문비(文妃)가 지은 시 2수 등 몇몇 만을 꼽을 수 있다.<sup>45)</sup> 그러나 이것들로부터도 요나라문학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발해국이 존재했던 시기는 일본과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관계도 매우 좋았다. 그중에서 배구(裴謬)는 일찍이 두차례나 일본에 출사하였다. 발해와 일본 양국 우호의 사자였고, 또한 일부 일본인사들과 개인적으로 깊은 우의를 다졌다. 발해가 멸망하자 당시 문적원감(文籍院監)이었던 배구(裴謬)는 말왕 대인선(大諲諲)을 따라 거란(契丹)에 항복하였다. 동란국(東丹國)이 건립되고 배구(裴謬)는 동란국(東丹國)의 문적대부(文籍大夫)가 되었다. 동란국(東丹國)의 내정과 외교는 대부분 발해시기의 제도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요나라 천현(天顯) 3년 배구(裴謬)는 사신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사행을 떠났다. 이해 12월 24일(930년 1월 26일) 일본 단후국(丹后國) 죽야군(竹野郡) 대진빈(大津濱)에 도착하였다. 이때 일본측에서는 발해국이 이미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발해국 사신의 예로서 대우하였다. 그러나 배구(裴謬) 등은 스스로 동란국(東丹國) 사신이라고 부르고, 지니고 간 문서 역시 이전의 것과는 다른 곳이 있어 자세히 물으니, 배구 등이 대답하기를 “본래는 발해인이지만, 지금은 항복하여 동란국(東丹國)의 신하가 되었다”고 하였고, 또한 “대답에서 거란왕(東丹國)의 궐상을 여러 차례 성토하였다”<sup>46)</sup> 일본측에서는 배구(裴謬)가 아침에는 진(秦)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초(楚)나라를 섬기는 등 신하로서의 절개가 없다고 인식하여 사장(謝狀)을 올리는 것을 책망하였다. 배구(裴謬)는 이에 “사장(謝狀)”을 올려 말하기를 “배구(裴謬) 등이 참된 것을 버리고 그릇된 것을 좇으며, 선을 다투어 악을 따르며, 위기에 빠진 선주를 구하지 않고, 전쟁 중에 새로운 군주에게 뜻을 굽히었다. 하물며 천

44) 吳曾, 「能改齋漫錄」 권8, 商務印書館, 1939.

45) 또 「定安國王烏玄明上宋太宗之表」가 있지만, 이것은 송나라 사람이 쓴 것으로, 요나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46) 「扶桑略記」 권24 : 孫王良, 「渤海史料全編」, 吉林文史出版社, 1992, 374쪽.

자들 받드는 하찮은 사신들이 상국의 항규를 어지럽히는 데야. 날아오르는 해오라기(振鷺)를 보며 부끄러워하고, 예절을 모르는 사람을 나무란 「시경」, 「상서(相鼠)」를 읊으니 무서워 발이 떨린다. 불충하고 불의하며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뜻을 보이니 일찍이 꾀할 곳도 없으나 이에 사장을 올립니다. 배구 등은 황송하고 황공하게 감히 올립니다”라고 하였다.<sup>47)</sup> 단순히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장(謝狀)”은 확실히 언어가 간결하고 전거의 사용이 매우 정확하여 배구(裴謬)의 높은 문학적 소질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발해유민 가운데 결코 배구(裴謬) 한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발해에는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선비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란국(東丹國)에서 판리가 된 거란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천조제(天祚帝)의 발해출신인 문비(文妃)의 성은 대씨이며 어려서의 이름은 슬슬(瑟瑟)이다. 국구 대부방(大父房)의 딸이다. “충명하고 고상하며, 말이 적은 것을 중하게 여겼다.”<sup>48)</sup> 건통(乾統) 3년(1103)년에 문비(文妃)가 되었고, 진왕(晉王)에 봉해진 오로한(敖盧翰)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여리연(余里衍)이라는 딸은 촉국공주(蜀國公主)에 봉해졌다. 처음에는 천조제(天祚帝)의 총애를 받아 시책의(柴冊儀)로 승의(承翼)이 더하여졌다. 그녀는 문재가 있었고 시가에 능하였다. 또한 매우 강한 우국지심이 있었다. 천조제(天祚帝) 후기에 여진이 요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주현을 함락시켜 그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강성했던 요제국도 해가 지며 점차 쇠약해졌다. 이러한 위기에서 천조제(天祚帝)는 정치에 어두워 소인들을 가까이 하고, 현량한 신하들을 멀리하였으며 사냥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비(文妃)가 시를 지어 이들 풍자하였다.

勿嗟塞上兮暗紅塵，勿傷多難兮畏夷人。  
不如塞外之險路兮，選取賢臣。  
直須臥薪嘗膽兮，激壯士之捐身。  
可以朝清漠北兮，夕枕燕云。

또 다른 시들 지어 풍자하였다.

丞相來朝兮劍佩鳴，千官側目兮寂無聲。  
養成外患兮嗟何及，禍及忠臣兮罰不明。  
親戚并居兮藩屏位，私門潛蓄兮爪牙兵。  
可憐往代兮秦天子，猶向宮中兮望太平。<sup>49)</sup>

이 두 시에서는 충성스럽고 현량한 신하를 멀리 배척하고 간신들이 정권을 잡았으

47) 「本朝文粹」 권12 : 孫王良, 「渤海史料全編」, 吉林文史出版社, 1992, 375쪽.

48)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13, 「遺裔列傳」,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2.

49) 「遼史」 권71, 「后妃」, 中華書局, 1974.

며, 음탕하고 권위적이어서 나라의 장래가 기울게 되었다고, 요나라 조정에 맹배한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도 명확한데, 그것은 소인을 멀리하고 현신을 등용하며 장사들을 일깨워 위기를 구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애석하게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듯이 천조제(天祚帝)는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비(文妃)를 질시하였다.

이때 일부 국사는 돌보지 않고, 단지 권력을 잡고 이익만을 좇던 일부 귀족들이 요나라 왕조의 몰락해가는 황위를 다투고 있었다. 천조제(天祚帝)의 아들 가운데 문비(文妃)소생의 진왕(晉王) 오로한(敖盧翰)이 “가장 현명하며 평소 덕망이 있다”고 하여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황후 소씨의 형 소봉선(蕭奉先)이 황후 소씨의 아들이 황위를 잇도록 보장하기 위해,<sup>50)</sup> 문비(文妃)가 매제 남군도통(南軍都統) 야율여도(耶律余睹)와 모의하여 진왕(晉王)을 황제로 옹립하고, 천조제(天祚帝)를 태상황(太上皇)으로 몰리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천조제(天祚帝)는 이로 인하여 문비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다. 오래지 않아 요나라도 멸망하였다.

홍호(洪皓)의 『송막기문(松漠紀聞)』에 “三陽應律，載肇于歲華，萬壽稱觴，欣逢于元會，恭維受天之祜，如日之升，布治維新，順夏時而謹始，卜年方永，迈周曆以垂休，臣幸际明昌，良深抃頌，远馳信帄，用申祝圣之诚，仰冀清躬，茂集履端之庆.”라는 발해 「하정표(賀正表)」 한 편이 기록되어 있다.

김육불(金毓黻)은 이 표가 “자못 발해사 음성했을 때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 정월을 축하하는데 사용한 표”라고 하였는데,<sup>51)</sup> 조지휘(趙志輝) 등도 이 설에 동의하였다.<sup>52)</sup> 펠보괴(畢寶魁)는 당나라 시기 발해국이 728년 당나라에서 반포한 새 달력 「대연력(大衍曆)」을 축하한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그러나 적립위(翟立偉)는 『송막기문(松漠紀聞)』을 검토할 때 발해가 요나라에 올렸다고 주석을 달았다.<sup>54)</sup> 펠자는 이 표가 동란국(東丹國)에서 거란(契丹)에 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송막기문(松漠紀聞)』에서 말한 발해는 모두 동란국(東丹國)을 가리키며, 동시에 고려(高麗)와 서하(西夏)의 하정표(賀正表)도 실려있기 때문이다. 고려 및 서하와 동시에 존재한 나라는 동란국(東丹國)뿐이다. 이것은 오나라시기 발해유민의 문학작품이다. 이 표는 비록 내용은 텅비어 있으나 맺구는 가지런하며 시문의 문체가 화려하다. 만약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본다면, 뛰어난 변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요나라시기 발해인들의 문학수준이 표현된 것이다.

50) 『遼史』 「后妃傳」에는 황후 소씨에게 아들이 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遼史』 「皇子傳」에 天祚帝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文妃, 元妃가 각각 1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은 누구의 소생인지 알지못한다. 蕭奉先이 晉王을 모해한 사건으로 보면, 4명의 아들 가운데 적어도 1명은 황후 소씨의 소생일 것이다. 만약 황후가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왕 모자와도 정권쟁탈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1)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18, 「文征」,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2.

52) 趙志輝, 鄧偉, 馬清福, 『滿族文學史』, 瀋陽出版社, 1990, 83쪽.

53) 畢寶魁, 『渤海遺文「賀正表」寫作時間考』, 『滿族研究』, 1999-4期.

54) 洪皓, 『松漠紀聞』, 吉林文史出版社, 1988, 48쪽.

발해유민들은 문학예술방면에서 거란인들에 대한 영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동단왕(東丹王) 야율배(耶律倍)는 본성이 독서를 좋아하여 “시서가 만권에 이르며 의무려(醫巫間) 정상에 위치한 망해당(望海堂)에 소장하였다. 음양을 능통하고 음률을 알았으며, 의약과 침술에 정통하였다. 요(遼)와 한(漢) 문장에 능하였고 늘상 『음부경(陰符經)』을 풀이하였다. 본국의 인물도 잘그렸다. 예를 들어 『사기(射騎)』, 『엽설기(獵雪騎)』, 『천록도(千鹿圖)』 등은 모두 송나라의 비부(秘府)로 들어갔다.” 그가 바다를 건너 후당(後唐)에 투항했을 때 바닷가에 나무를 세우고 “작은 산이 큰 산을 누르는데, 큰 산은 전혀 힘이 없네. 고향사람을 보내고, 이에 다른 나라에 몸을 의지하였다네”<sup>55)</sup> 라는 내용의 시를 새겼다. 이 시는 단지 20자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이 도망 온 까닭, 심경,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문자가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조금의 여백도 없으며 두보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

## ② 음악, 춤

발해의 음악은 매우 특징적이어서 발해인 스스로가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의 생활도 풍부하게 하였다. “발해악(渤海樂)”은 중원에 전파되어 북송 궁정음악의 하나가 되었다. 북송(北宋)의 음악문화는 발달하였는데, 발해악(渤海樂)은 북송(北宋)의 음악분야에서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남송(南宋) 순희(淳熙) 12년(1185) 송나라조정에서는 “발해악(渤海樂) 교육을 금지하였다.”<sup>56)</sup> 이유는 발해의 중심 악기인 발해금(渤海琴)이 “침체되어 음성함을 억누르며, 가락이 분명하지 않아, 너무 혼탁한 까닭에 그 소리들 듣는 사람들은 안으로 성정이 분산되고, 밖으로는 수족이 어지럽다”는 것이었다.<sup>57)</sup> “침체되어 음성함을 억누르며, 가락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으로 보면, 이 악기는 상당한 감염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송(南宋) 조정에서 발해악(渤海樂)을 배우는 것을 금지한 것은 성리학(性理學)이 발전하고 사상이 강화되는 추세와 결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코 발해악(渤海樂)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 금지령은 진정으로 발해악(渤海樂)을 금지할 수 없었다. 『몽양록(夢梁錄)』에는 “불고, 장고들 치는 발해악(渤海樂)이 1박에서 10박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sup>58)</sup> 『몽양록(夢梁錄)』 자료는 주로 남송(南宋) 순무(淳祐), 함순(咸淳)연간에 만들어진 『임안지(臨安志)』와 작자가 전문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13세기 중엽까지 『발해악(渤海樂)』이 여전히 남송(南宋)민간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발해악(渤海樂)은 또한 금나라 조정의 음악 가운데 하나이다. 발해악(渤海樂)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주하는 발해교방이 있었다. 발해교방의 악인들은 일찍이 태상(太常)에

55) 『遼史』 권72, 『義宗傳』, 中華書局, 1974.

56) 『宋史』 권95, 『孝宗本紀』3, 中華書局, 1974.

57) 『宋史』 권131, 『樂志』 상, 中華書局, 1974.

58) 吳自牧, 『夢梁錄』 권20, 『伎樂』, 浙江人民出版社, 1984.



도 선발되었는데, “태화(太和) 초년에 유사에서 다시 태상공인(太常工人)의 수가 적음을 주청하여 발해와 한인교방과 대흥부악인(大興府樂人)들을 가르쳐 갖추게 하였다”라고 하였다.<sup>59)</sup> 발해악(渤海樂)은 일찍이 발해국이 존재할 때 이미 동쪽 이웃인 일본에도 전해졌으며, 당악(唐樂), 오악(吳樂), 삼한악(三韓樂)과 함께 궁정 아악 가운데 하나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의 무악 중에서 대말갈(大靺鞨), 신말갈(新靺鞨), 신오소(新烏蘇), 고오소(古烏蘇), 진주독(進走禿), 퇴주독(退走禿), 부수(數手), 귀덕(貴德), 곤륜팔선(崑崙八仙), 지구(地久) 등의 무악은 발해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0)</sup>

사료에는 요나라 궁정에서 발해악(渤海樂)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송, 금, 내지 일본에서 발해악(渤海樂)이 있었던 상황에 근거하면, 요나라의 음악도 아마도 발해악의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단지 사료에 기록이 없어서 살펴볼 수 없을 뿐이다.

발해인들은 노래와 춤에도 능하였다. 춤은 생활의 중요 구성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발해국이 멸망한 이후 유민들은 이 전통을 유지하였다. 북송왕(北宋王)이 일찍이 요나라에 사신을 떠났다가 유하관(柳河館)에서 발해유민들이 이러한 풍속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매년 모여서 노래를 하고, 먼저 노래와 춤을 잘하는 몇몇 무리가 앞에 가면, 사녀들이 서로 따르며 화답하여 노래를 부르며, 돌아와 팔짱을 끼고 도는데 이를 답추(踏捶)라고 한다.”<sup>61)</sup> 청나라 양번(楊寶)의 『유변기략(柳邊紀略)』에서 영고답 만주족춤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만주에는 대연회가 있다. 주인집의 남녀가 반드시 일어나 춤을 추는데, 대체로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뭉에 댄다. 빙글빙글 도는 이것을 망세(莽勢)라고 하는데 중간의 한사람이 노래하면 무리들이 모두 공제(空齊)라는 말로 화답하는데 이것을 공제(空齊)라고 한다.”<sup>62)</sup> 왕승례(王承禮)는 이러한 춤이 바로 발해인들의 “답추(踏捶)”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하였다.<sup>63)</sup>

59) 『金史』 권39, 「樂志」상.

60) 王承禮, 「中國東北의渤海國與東北亞」, 吉林文史出版社, 2000, 357쪽.

61) 『王忻公行編錄』: 「契丹國志」 권24에 보임.

62) 楊寶, 「柳邊紀略」 권3: 「龍江三紀」, 黑龍江人民出版社, 1985, 91쪽.

63) 王承禮, 「中國東北의渤海國與東北亞」, 吉林文史出版社, 2000, 358쪽.

# 「요나라시기 사회경제문화발전에 대한 발해 유민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金恩國(東北亞歷史財團)

## 1. 발표자와 발표 내용

中國 黑龍江省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梁玉多 先生은 일찍이 「關於“小高麗國”的幾個問題」 『黑土地的古代文明:全國首屆東北民族與疆域問題學術研討會論文集(劉厚生 孫啓林 王景澤 主編, 北京, 遠方出版社, 2000)』, 「渤海國 呼稱‘靺鞨’考」 『東北史志』 2006-3, 「簡析渤海國對其周邊民族實行的羈縻政策」 『北方文物』 2006-1 등의 中文과 「발해의 몇 가지 음식습관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2, 서경문화사, 2006의 國文 논고로 한국학계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발표자는 먼저 발해를 동북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민족이며, 비록 요나라 정권에 의해 무력으로 멸망되었으나, 그 사회발전수준은 요나라를 능가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해 유민의 요 정권의 사회문화 발전에 끼친 역할을 강조하여 서술하여 주었다. 지금까지 발해 유민에 대한 연구는 발해사의 여타 주제에 비해 그 비중이 거란사 혹은 고려사, 혹은 일본과의 관계사 속에서 접근되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외에서 발해 유민사의 전문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무적인 연구 경향이다.

발표자 역시, 그러한 연구 환경 위에서 주목되는 발표로 주목된다. 발표문에서는 경제와 문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해유민의 위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경제 부분에서는 농업, 야철업과 철기 제조업, 방직업, 도자기 제조업, 음식 습관 등에서 다루었고, 문화 부분에서는 문학, 음악과 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서술을 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에서는 요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발해유민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과 생산방식이 요나라 농업의 발전을 초래하여 요 왕조의 사회적 기반을 안정시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해의 야철업과 철기제조업에서도 유목정권인 거란 왕조가 冶鐵을 이용할 수 있는 제기를 마련하였으며, 요나라의 야철지 등은 발해의 장인들이 채굴하고 제련한 것임과 遼 조정의 銅 및 金 등 여타 금속 야련법도 발해 유민의 절대적인 영향임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뛰어난 수준의 방직기술과 도자기 제조업,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 등에서 발해유민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여 제시하여 주었다.

이상에서 든 발해유민의 경제 각 분야에서의 탁월한 장인 정신과 안정적인 발전은 문학과 음악, 그리고 무용 등을 통해 발해 문화의 우수성을 동아시아에 파급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 2 이상 발표 내용 정리 위에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경제부분 중 농업 부분에서, 발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水利와 灌溉 사업의 중요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요동의 농업생산력,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노성의 벼’ 등의 농작물 재배에는 주변의 용수 활용이 큰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발해 시대 灌溉施設 운영 현황에 대해 최근 발해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2) 문학 부분에서, 발해인의 한문학 수준은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란국(東丹國)의 원료가 되어 사신으로 일본에 간 배구(裴璆)의 경우, 그 文才를 통해 발해유민은 물론 동란국 내에 발해인의 학문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다이고(醍醐)왕과 나눈 대화에서는 발해국 멸망으로 인해 동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하는 비애마저 느끼게 해 준다. 여기서 일본측이 책망하는 듯 말하는 “……위기에 빠진 선주를 주하지 않고, 전쟁 중에 새로운 군주에게 뜻을 굽히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발해의 말왕 대인선이 거란 야율아보기에게 항복을 하였던 『遼史』의 기록과 관련지어 볼 때, 기존의 해석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이는 바로 앞 구절에 “……(二心을 품어)‘朝秦暮楚’하여 남의 신하로 되었은 즉 어찌 일조에 이렇게 된단 말이나”라는 질책과의 관련에서 볼 때, 이 속의 ‘二心’을 발해 내부 권력 모순과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보인다. 발표자는 이 ‘二心’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발해멸망의 원인은 무엇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3) 마지막으로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발해의 음악 渤海樂은 고구려 음악과 같이 중원의 궁정 음악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전문적인 발해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渤海敎坊이 있었고 악기로는 渤海琴이 알려지고 있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송, 요, 금으로 이어지는 중원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 까지 전해질 정도였다. 그런데, 발표자는 사료상에서 요나라 궁정에 끼친 발해악의 일정한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渤海樂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금나라가 발해국과 요나라의 음악을 계승하였고, 발해악은 역사적으로 요나라의 기존 판도에서 발달하였으며, 요의 연악 중 ‘계국악’이 요 와 다른 민족의 사신들이 와서 연출한 악무란 점에서 요대에도 발해악은 분명 위상이 컸던 것이다. 또, 요 금대의 악기들이 고구려 악기와 많이 닮은 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본다.

다음으로는 남송(南宋) 순희(淳熙) 12년(1185) 송나라 조정에서 “발해악(渤海樂) 교육을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그 이유를 발해의 중심 악기인 발해금(渤海琴)이 “침체되어 음성함을 억누르며, 가락이 분명하지 않아, 너무 혼탁한 까닭에 그 소리들 듣는 사람들은 안으로는 성정이 분산되고, 밖으로는 수족이 어지럽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남송(南宋) 조정에서 발해악(渤海樂)을 배우는 것을 금지한 것은 성리학(性理學)이 발전하고 사상이 강화되는 추세와 결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남송에서 발해악 교육 금지는, 일단 그만큼 발해악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성리학적 강화 추세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발해 유학의 수준 역시 높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의 발해악 금지 조치는 다른 요인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하는 점이다. 가령, 남송과 금의 대치로 인한 국제적 배경에서 찾을 수 없을까 발표자의 高見을 듣고 싶다.